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22.(금) 10:30,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개성공단 화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2시경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향을 도라산전망대에서 포착하였습니다. 화재발생 1시간 이후에 불길은 진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 시설들의 피해상황 및 화재발생 원인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일부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청년평화영화제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시사회에 참석하여 청년 감독들과 소통하면서 격려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간략히 일정 소개를 마쳤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열병식을 개최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스스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대외에 알린 의도는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요?

또 이번 친서에서 북한이 깊은 신뢰심을 언급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답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련한 브리핑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친서 공개 의도 등을 포함해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통일부는 유관부처 및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해왔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관련 청와대와 통일부 간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인사들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사전에 전달됐

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처로의 경과 등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제 개성공단 화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어디이며, 화재의 발생원인, 화재 규모, 피해기업 등 추가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어제 발생한 개성공단의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지점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의 공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생 지점, 화재원인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속 파악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개성공단 화재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지요? 이와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는 오늘 아침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서 북측에게 화재사실 확인 및 화재원인, 화재 규모 등에 대해 구두로 문의하였으며, 현재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남북 간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 측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드렸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